2026.08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52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인 나눔과행복의료재단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미션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비전 2030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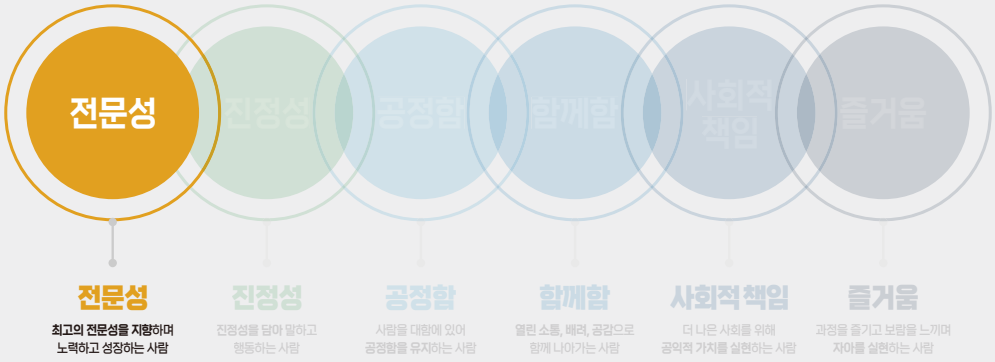
핵심가치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2026년 간호팀 승진대상자 교육 (07월 한 달)

<교육 참석자>

5층 생활재활파트 김보슬
6층 생활재활파트 정소진, 오인하
7층 생활재활파트 고문정
8층 생활재활파트 김보라 최정아
감염관리팀 이무경



승진은 과거 성과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쌓여서 저절로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 생각도, 판단도, 역량도 크고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간호팀 정기승진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열렸습니다. 한분 한분이 자신의 성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한 단계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승진대상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던 깊은 고민들을 병원장님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고요. 그동안 해나행이 해왔던 도전들의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미래를 그려보고, 업무역량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더 채워 가면 좋을지 체크도 해보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를 배우는 일은 내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길지 않은 교육이었지만, 직책자로서 놓쳤던 부분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강의를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력과, 바쁜 업무 중에도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새로운 직책으로 출발하는 첫걸음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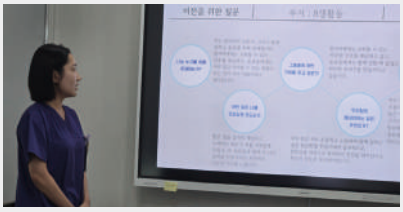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교육 내용>

"해나행 미션&핵심가치와 나의 삶, 나의 일" - 백선미 병원장님
"해나행 재활의료의 도전과 성과, 나아갈 길" - 이재욱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사무처장
"AI활용을 통한 업무효율화" - 김대용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AI전문강사
"업무보고와 소통방법" "비전의 의미와 나의 비전수립" - 박인영 조직문화성장실장









#간호팀 승진대상자들의 꼽은 [대화의 기술]의 한 문장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닌 '응원'입니다"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 보다 공감과 응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업무상 타 부서에 피드백을 전달할 때도 이러한 소통방식이 결과적으로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선언이 문제행동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자원이 된다."

타인과의 대화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나 자신과의 대화이고, 남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전하듯 나 자신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가 결국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결국 신뢰라는 것은 상대를 설득해서 얻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쌓여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며 편안하게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대화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성향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여 병동의 비전에 맞게 조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는 인정이 상대를 변화시킨다."

평소 인정 욕구가 큰 자신을 알면서도 억제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받아주지 않고 있었으며 타인에게 바라는 것도 인정과 존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도 같은 인정과 존중의 칭찬을 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병원 미션인 '사람을 봅니다' 핵심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좋은 대화는 입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대화의 기술은 나를 표현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관계의 기술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낮병동) 7월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8.07)





"좋은 선생님들과
친절한 낮병동
간호사선생님들 덕분에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출석왕 정○걸 님

"아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립왕 박○수 님

"항상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석왕 서○용 님

"낮병동에 나오기 위해
대학교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자립왕 김○용 님

일상재활센터에서는 치료를 넘어, 스스로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활은 어느 한순간의 큰 변화보다 매일 꾸준히 치료에 참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참여자분들의 노력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꾸준히 센터를 찾는 발걸음도, 스스로 해내기 위한 작은 시도도 모두 소중한 재활의 과정입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전하며, 일상재활센터는 앞으로도 참여자분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휠체어스쿨 (08.10)





신규 참여자 황OO님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며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기초반은 휠체어 기본 전진·밀기·회전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급반에서는 휠체어 바이크를 이용해 지하 3층에서 회전과 경사로 오르내리기를 연습했습니다. 조작이 능숙해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셨지만, 경사를 오르던 중 잠시 멈췄을 때 다시 출발하는 동작은 조금 어려워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연습을 마친 후에는 휠체어 바이크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가 외부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자분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더위가 언제였나 싶을 만큼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병원 밖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작은 도전, 그리고 즐거운 외부활동까지.
이번 시간이 참여자분들에게 병원생활에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7.22)

장애인 예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마린시티 우리은행점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관공서나 은행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 가더라도,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서류가 부족하여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동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 번 방문했을 때 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출발 전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준비한 서류를 통해 장애인 예금 비과세 혜택을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주차장에 주차한 후 은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불편함 없이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참여자분께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인근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참여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행 업무와 카페 이용까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였으며, 참여자분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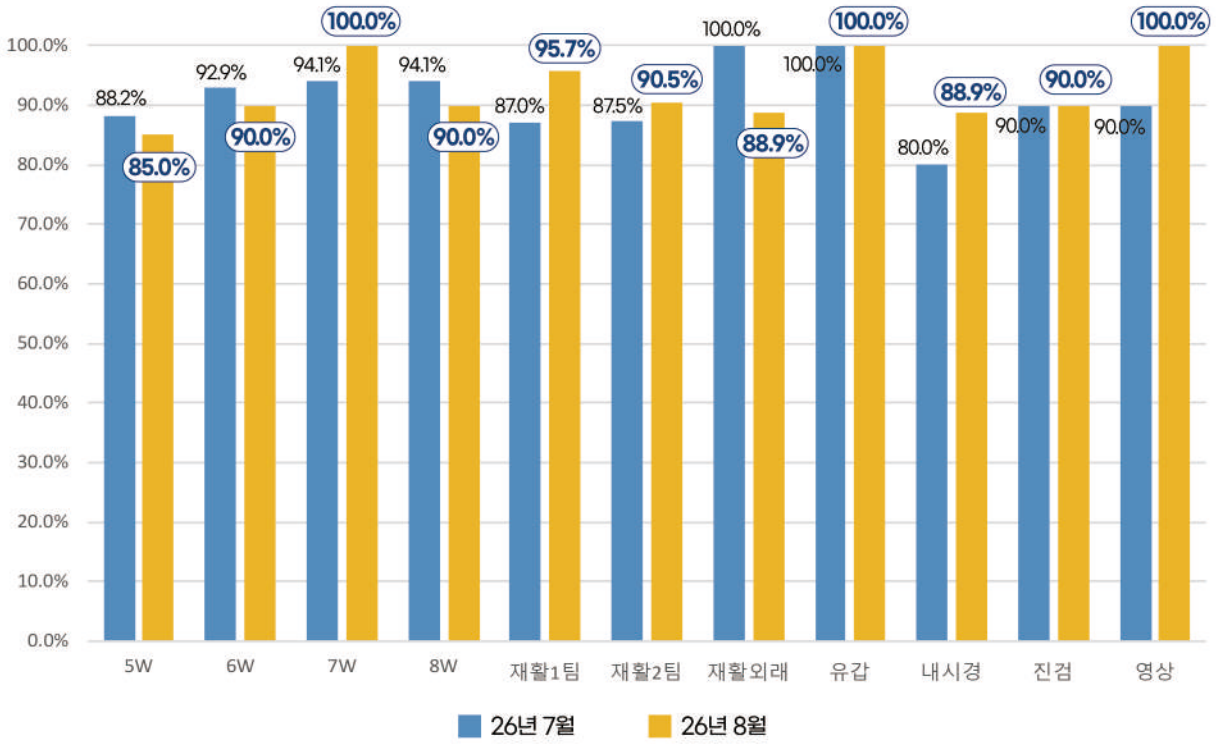
2026년 8월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6년 08월 01일 ~ 2026년 08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6년 7월 결과와 비교 분석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6	153	92.2%	+ 2.0%

8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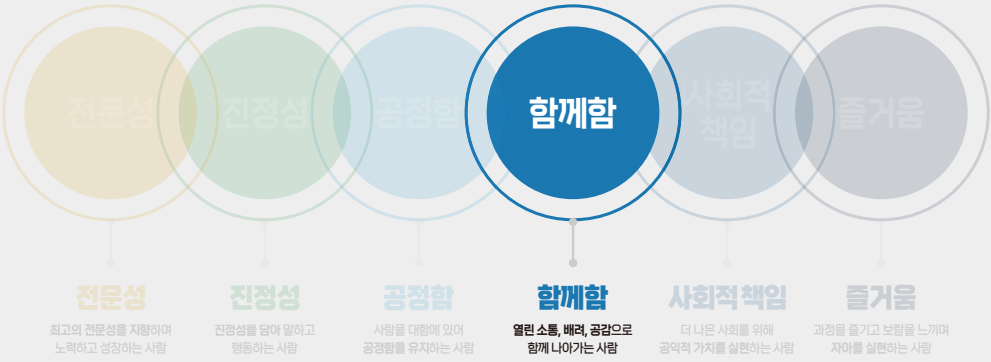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공식 영화 스틸컷 >

책 밖에서 만난 이야기, 8월 문화생활

다독다독 '오디세이' 관람 (08.21)

8월의 독서모임은 잠시 책장을 덮고, 시원한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조금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선택한 작품은 요즘 가장 뜨거운 영화 〈오디세이〉였습니다.

무려 3시간에 달하는 영화인 만큼 퇴근과 동시에 모두가 부랴부랴 영화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고 상영 시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이날의 분주함을 보여주듯 정작 사진은 단 한 장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독다독의 8월 문화생활은 그렇게 '사진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긴 러닝타임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금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시간이 되는 회원들끼리 극장 1층 커피숍에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던 만큼 오래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과 영화에 대한 짧은 감상을 나누며 이날의 여운을 조금 더 이어갔습니다.

이번 8월 다독다독에는 남은 사진은 없지만,
함께 서둘러 영화관으로 향했던 순간과 키오스크를 옆에 두고 직원을 기다렸던 장면,
세 시간의 이야기를 같이 바라본 기억은 또 하나의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가끔은 책 대신 스크린을 펼쳐보는 것도,
다독다독다운 여름 독서법이 아닐까요.^^

다독다독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독서동아리

※ [다독다독]은 상시 회원을 모집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O.K!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언제든 **[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사회사업팀 정주영 주무

우리는 가족입니다.
08월의 신규입사자



내과내시경팀
김 진 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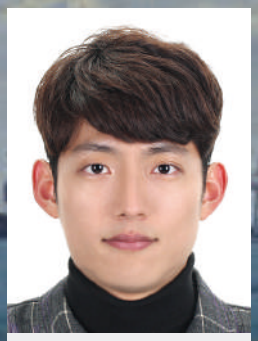
재활간호팀(5W)
이 무 년 팀원



재활간호팀(7W)
신 채 은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윤 선 미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김 수 형 간호사



재활간호팀(7W)
박 신 영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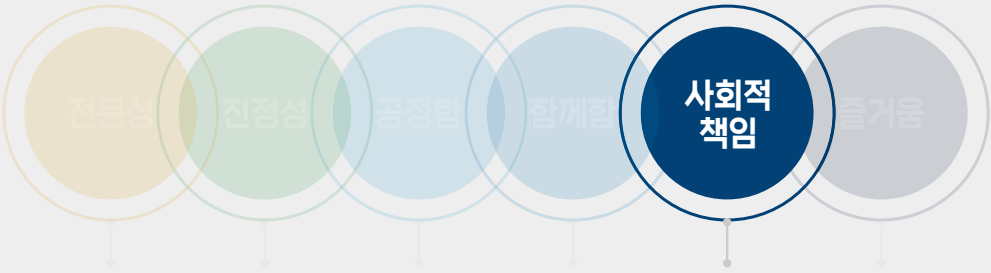
후원사업실
김 상 도 실장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척수장애인과 함께한 다대포 SUP 해양레저 체험

바다에서 만난 특별한 하루, '멍해' (08.01)

다대포해수욕장 에서 척수장애인과 보호자,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멍해, 척수장애인과 동행하는 바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 '2026 KIMA WEEK' 공식 프로그램으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부울경바다수영협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부산장애인럭비협회,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나행동 후원회원들도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특별한 동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SUP에 탑승해 다대포의 바다와 노을을 바라보며 휴식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전용 보조 시트와 스테빌라이저를 설치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바다와 파도, 노을을 함께 경험한 이번 행사는 장애 여부를 넘어 서로 소통하고, 척수장애인의 새로운 여가와 사회참여 가능성을 넓혀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지원 (08.14)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정OO님이 선정되어 총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정OO님은 오랜 기간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해오다 뇌출혈 발병을 계기로 27년 만에 가족과 다시 재회하였으며, 가족들의 지지 아래 가정으로 돌아가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가족들이 전액 부담해왔으며,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이어가는 데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덜고, 재활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랜 단절 끝에 다시 만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이번 지원이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사업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자와 가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08.18 / 08.28)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3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7월의 해나행의 이름 모를 친절 직원!

칭찬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하는데 **보조선생님께서 손을 잡고 토닥여주셔서** 힘듦을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채혈하시는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구요.** 고맙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따뜻한 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신수영 선생님께 친절히 진료받고 귀가 후 팔찌를 잃어버린걸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대표 번호로 전화드렸고 남자분께서 찾으면 연락드리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월요일 혹시나 하는 맘에 전화했더니 원무과에 보관중이니 찾아가라더군요. 퇴근후 팔찌를 찾았고 **신수영쌤 간호사분(이름은 모르겠어요ㅠㅠ)이 찾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이 친절한 병원은 한군데도 못봤는데 **다들 전부 친절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방문하고 싶고 추천도 하고 싶은 병원입니다.**

첫 방문.. 내분비과.. 불안과 낯설음에 어리둥절했는데 **간호사님의 친절함으로 적응에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내과 류승훈선생님 담당해주시던 간호사 선생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은데 일부러 먼저 다가와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배려에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배려가 나눔과 행복이란 병원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시설이 정돈되고 쾌적한 느낌이 들었고, 입원 과정에서 8병동의 간호사님들과 간병인 분들의 **체계적이고 친절한 안내와 설명 및 담당의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재활병원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질환을 보는게 아니라 질환을 갖게된 사람을 본다는 의료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환자 보호자로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7층 병동에서 5개월가량 입원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외없이 친절하시고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종사인이 한결같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맘 편하게 병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뭐라 감사함을 전할 수 없어 안타깝네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모범 사례로 뽑혀 다른 병원에도 벤쳐마킹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수납 접수대에 여자 직원분 진짜 너무 친절하셨어요. **7월 14일 오전 방문했고 들어가는 방향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3번째 앉아계신 분**이세요. 아ㅜ 이름을몰라서 ㅜ 안경 안 낀 여성분이신데ㅜ 너무 안타깝네요.. **친절히 웃으며 응대해주셔서 긴장이 확 풀렸어요~**

매번 갈 때마다 원무과 직원 분들도 그렇고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선생님도 **모두 모두 너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진료해주신 선생님 이전에 **아팠던 증상까지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타병원 감사소견을 가지고 ct를 찍었는데, 간호사들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하였고, **링거 주사를 놓는 간호사는 단번에 혈관 찾아 하나도 안아프고, ct찍는 기사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행하니 긴장도 안되고 잘 찍고 나왔다.**

원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친절했고, 특히 제가 겪은 전해질 부족이 3번째 경험했는데 환자에게 자세히 알려준 의사선생님이 없었는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어지러움 구토가 염분 치수가 낮았음을 알고 제 식단에 문제있음을 알게 되어 쾌제입니다.**

직원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지만 **채혈실 직원분이 친절하셔서 기억이 납니다.** **안경쓰시고 펌 단발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문의에 민감한 부분도 알아서 친절히 잘 이야기해주셔서 이번 검진 때 인상에 남습니다.

저는 7월 29일 오전 9시로 예약했던 환자인데 내분비 내과 원장실 앞 간호사 선생님~ (성함을 못보고 와서..) **제가 다녔던 모든 병원을 통틀어 가장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병원이 되었네요~

내과 쪽으로 예약할 때 건강검진 날짜 심장내과 다른 검사와 겹침 없이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 쪽으로 봤을 때 제일 왼쪽 끝에 근무하시던 자그마한 간호사분 너무 친절했어요~**

성함이 생각나지 않지만 **웃는 상에 피부 하얗고 머리 묶고 계신 병원장님 접수담당해 주시는 직원 분**까지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물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함까지 갖춘 병원이라 감사하며 주변에도 추천해주고싶은 병원입니다~**

진심 가득 감사글 남겨주신 고객 분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달의 칭찬 직원들



가정의학과 **황은교** 과장

가정의학과 황은교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안내**가 내담자에게 깊은 인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들 친절하시지만, 가정의학과 은교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상담 잘해주십니다!

건강증진팀 **최지윤** 팀장

매년 해오던 건강검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제가 여러번 전화와 방문으로 귀찮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시경실까지 오셔서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제가 달리 감사함을 표할 길이 없어서 친절사원으로 꼭 선정해주시길 바라며 작성합니다.

재활치료팀 **치료사 선생님들**

최유현 선생님, 여승준 선생님, 서봉수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정민정** 과장

내과 정민정선생님 친절하고 전문적임

재활치료팀 전체

나눔행복병원 재활쌤들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았어요. 저희 환자 케어해주신 재활쌤들 감사했어요.

재활치료1팀 **윤소영** 치료사

윤소영쌤 덕분에 내 몸이 점점 좋아지는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짱좋아

갑상선유방센터 **신수영** 진료부장

신수영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듣게 조목조목 잘 말씀해주셨고 아주 친절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들도 가는곳마다 너무 친절하게 도와 주셔서 고맙고 기분 좋았어요.

유방센터 진료가 물 흐르듯 체계적이고 신수영 선생님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신수영 선생님의 설명이 넘 와닿았습니다. 좀 긴장하고 걱정했었는데 백병원에서 이 병원을 믿고 가보라해서 왔는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나니 3시간 걸려 병원에 온 보람을 느꼈어요.**

신수영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주변 지인께 적극 추천하고 있답니다.

신수영 선생님께 **진로를 받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생님 꼼꼼하게 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센터 **신민지** 과장

영상의학과 신민지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야무지고 친절하셨습니다.
젊으신 분이 실력까지 갖추신 듯해서 든든했습니다. 영상의학과 간호사님들도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신민지 선생님 **특히 친절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민지 선생님 진료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간호사 두 분도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두 분 성함을 알고 오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원무과 직원들도 일 처리 빠르시고 친절하셨습니다.

재활의료 **서휘** 부장

서휘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진료해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휠체어까지 손봐주시는 자상함이 감동이었습니다~ 번창하세요.

갑상선유방센터 **서영화** 과장

서영화 선생님의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참 감사했습니다.**

재활치료1팀 **서영득** 치료사

친절하시고 인자한 서영득 쌤 칭찬합니다. **정말로 잘 가르쳐 주세요^^**

재활치료2팀 백영수 팀장

안녕하세요. 생활치료 팀장님의 특별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직원 모두 다 친절하고 **백선미 원장님의 온화한 미소로 긴장을 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의료진 모두 친절하시고 특히 백선미 담당의사 선생님께서 상냥하시고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진정되어서 좋았습니다.

백선미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백선미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상선부서 선생님들 특히 팀장님 맞으실까요? 컷트머리 선생님(성함을 모르겠어요)
오늘은 반대쪽 데스크 계셔서 인사도 못드렸어요~ 첫 진료날 친절히 응대해주시고 설명해주신 덕분에
마음 편히 먹고 어머니 시술까지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갑상선 부서와 백선미원장님께서 넘 친절하고 세밀하게 진료를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료보시는 선생님께서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백선생님)~~

**항상 다들 친절하시고 특히 백선미 선생님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
기분좋게 병원 방문할 수 있어요~**

백선미 원장님 친철하시고 진료 만족합니다.

백선미 원장님 비롯한 선생님들 모두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올해 1월 갑상선고주파시술 후 병원에 가는 길도, 대기하는 시간도 아직도 긴장되는 편인데 백선미 병원장께서
따뜻한 말투와 미소 덕분에 불안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심장내과 박민아 과장

심장내과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간호 선생님들도 친절하고요.
앞으로도 믿고 나눔병원에 갈려고 합니다.

심장내과 박민아 선생님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박민아 원장님 친절한 설명 진짜 좋았습니다.

7층 권 간사님

늘 웃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 보기 좋아요.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내분비과 접수선생님, 박미경 교수님 모두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내분비 내과 및 갑상샘 관련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있어요.(간호사 선생님 성함은 기억이 없네요)
예상 대기시간과 항상 친절한 안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미경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배우고 옵니다.

갑상선유방센터 **김현수** 부장

김현수 원장님 간호사 분들 너무 친절하세요.
일부러 일 빼고 가서 오늘밖에 시간 없었는데 조직검사 빠르게 할수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첫 방문이였는데 설명도 잘해주시고 최고~

전직원 모두 친절했습니다. 특히 김현수과장님 접수에 간호사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첫 방문인데 주차도 편했고, 안내하시는 분들, 접수 창구분들 진료실 앞 간호사님들, 의사선생님 모두 정말 친절하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김현수 선생님의 상세하고 쉬운 설명도 인상깊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간 병원인데 저도 제 지인들에게 꼭 추천하고싶은 병원입니다.
이대로만 해주신다면 크게 번창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갑상선/유방. 김현수 선생님과 앞에 계시던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건강증진팀 **김수민** 팀원

검진센터 직원 매우 친절. 김수민을 우수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수민 양 고맙습니다.

친절한 직원을 추천합니다. 검진센터 김수민 친철직원을 추천합니다.
너무 친절해 즐거운 검진을 마치고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고인영** 진료부장

고인영 부장님 되게 친절하세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에서 멀다면 먼데 고인영 선생님을 친절과 진심으로 환자를 맞이하는 선생님
저와 딸 모두 감사인사 드립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서른세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33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콩국수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콩국수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참여자분의 작은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다시 한 번 콩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불린 콩을 곱게 갈아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물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더해
고소한 맛을 한층 더했습니다.

여기에 아삭한 오이와 방울토마토,
정성껏 삶은 계란을 고명으로 올리고
은은한 노란빛이 식욕을 돋우는 치자면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한 그릇을 완성했습니다.

콩국수와 함께 든든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김가루 주먹밥과 갈비만두도 곁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콩국수에는 얼음을 동동 띄워 준비했습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최대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배식 시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속으로는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얼음아, 오늘만큼은 조금만 천천히 녹아다오!”

주방을 오가며 얼음과 시간의 눈치싸움을 벌였던 것도
오늘 콩국수 준비의 작은 뒷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그릇의 콩국수를 준비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는 일은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조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살피는 것.

“먹고 싶어요.”라는 말씀에
“네, 준비해 드릴게요.”라고 답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이
영양팀이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콩국수 한 그릇이
참여자분들의 식사 시간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와 함께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k-직장인의 성장 일기 3

완벽한 하루는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흰머리와 한바탕 협상을 벌였습니다.

대놓고 보이는 흰머리를
최대한 '언뜻언뜻' 보이게 만들겠다며
고데기로 이리 눕히고 저리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도 했습니다.

"완벽한데?
머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
오늘은 일이 술술 풀리겠는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아침 머리 스타일이 잘 나오면
하루도 잘 풀릴 거라는
직장인식 샤머니즘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직장인식 샤머니즘은 출근 전까지는 꽤 잘 통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첫 번째 실수를 전달받았습니다.

"...역시."
고데기는 머리카락만 정리해 줄 뿐,
하루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신입 때의 저는 실수를 하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혼나겠다.'
'팀장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거 아닐까?'
'내 사회생활은 오늘부로 종료인가...?'

퇴근해서도 침대에 누워
낮에 했던 실수를 감독판으로 다시 상영했습니다.

감독도 저고,
주연도 저고,
관객도 저였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혼자 이불을 걷어차던 날도 많았습니다.

신입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실수보다 더 무서웠던 건
'민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수를 안 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팀장이 되면
뭐든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팀장이 되어도 여전히 실수는 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실수 하나에 식은땀이 났다면,
지금은 팀원들의 실수 소식이
제일 먼저 제게 도착합니다.

처음이라 몰랐던 일도 있고,
너무 바빠 놓친 부분도 있고,
분명 두 번, 세 번 확인했는데도
용케 빈틈을 찾아온 날도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실수는 꼭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드는 생각은
"괜찮아. 나도 저랬었지."

신입 시절에는
실수한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혼내기 전에 이미
본인이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왜 실수했지?'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같은 실수를 줄이려면 무엇을 바꿀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았습니다.
실수는 퇴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실수가 생기고,
팀으로 일하다 보면 누군가는 수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월요일에는 그 일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신입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랬어."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머리가 완벽하게 잘돼도
하루는 늘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오전 9시도 되기 전에
첫 번째 실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하루도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아직도 실수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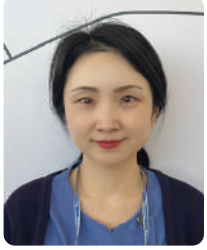
다만
예전에는 하루를 망쳤고,
지금은 오전만 망칩니다.

그 정도면
꽤 괜찮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요?

K-직장인은 그렇게 오늘도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지나,
조금 더 단단한 내일을 예약합니다.



영양팀
김정희 팀장



같은 파도 위에 오른 사람들

후원이 한 사람의 새로운 경험이 되기까지

>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됩니다.
> _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바다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두에게 가까운 곳은 아니다. 부산에 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걷고, 신발을 벗어 모래 위에 서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모래사장을 지나야 하는 사람에게 바다는 전혀 다른 거리로 놓인다. 단단한 길에서 잘 굴러가던 바퀴는 모래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고, 눈앞의 물가까지 이어지는 짧은 길에도 세심한 준비와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바다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곳에 닿는 조건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1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그 거리를 조금 좁혀보는 행사가 열렸다. 이름은 '멍해, 척수장애인과 동행하는 바다'. 대한민국 해양레저축제인 KIMA WEEK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척수장애인 참여자와 보호자, 후원회원이 함께 바다 위에 오르는 자리였다. '멍해'라는 이름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다 해(海)를 품은 말이면서,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물결과 노을을 바라보자는 가벼운 권유였다. 무엇인가를 잘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몸을 바다에 맡기고 잠깐 쉬어도 되는 시간이었다.

늦은 오후의 다대포는 낮 동안 머금은 열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다. 짠 내음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고, 여러 대의 SUP가 물가에 나란히 놓여 출발을 기다렸다.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보드 위에는 전용 보조 시트가 설치되었고, 양옆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가 달렸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들은 뒤 한 명씩 천천히 탑승을 준비했다. 몸의 위치를 맞추고 시트를 고정하고, 보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날 부울경바다수영협회 회원들은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곁을 맡았다. 출발할 때 잠깐 손을 보태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보드에 오르는 순간부터 바다 위를 이동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까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안전을 살폈다.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파도의 방향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긴장한 표정이 풀릴 때까지 계속 말을 건넸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신의 속도를 앞세우지 않고 참여자의 호흡에 맞추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물 위에 오른 얼굴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육지에서는 가만히 있던 보드가 파도를 만날 때마다 천천히 흔들렸고, 손은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하지만 곁의 안전요원이 보드의 균형을 잡고 차분하게 안내하자 굳어 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 수평선이 열리고, 물소리 사이로 웃음이 번졌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전과 준비가 먼저였지만, 막상 물 위에 오르고 나니 풍경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한 협회 회원은 여러 차례 '멍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날의 시간이 유난히 인상 깊고 좋았다는 뜻의 말을 전했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느껴졌다. 척수장애인 참여자와 같은 보드 위에서 물결을 지나고, 처음의 긴장이 미소로 바뀌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함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의 바다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장비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전용 시트와 안정화 장치 위에 사람의 주의 깊은 눈과 손이 더해졌다. 부울경바다수영협회 회원들이 보여준 세심함은 참여자들이 바다를 걱정보다 즐거움으로 기억하게 만든 중요한 조건이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곁을 지켜준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바다 위의 자유는 혼자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었다.

스포츠를 경험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보는 것 이상의 일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바다와 보드 위에서 만난 바다는 다르다. 해양레저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과 물결이 몸 아래에서 움직이는 감각을 직접 느끼는 것도 다르다. 시작 전에는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앞서지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질문이 달라진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경험은 완성된 답을 주기보다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밝은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쪽으로 바꾸어준다. 장애 이후 새로운 활동에 나서는 일에는 많은 확인이 따른다.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필요한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를 직접 해본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나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직 가보지 못한 장소가 있고, 아직 시도하지 않은 활동이 있으며,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안에 자신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은 삶의 반경을 넓힌다.

서쪽 하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색을 바꾸었다. 푸른빛이 옅어지고 노란빛과 주황빛이 물 위로 길게 번졌다. 보드 아래에서 잔물결이 부딪힐 때마다 작은 물방울이 튀었고, 햇빛을 받은 물방울은 잠깐 반짝이다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풍경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탑승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처음 만난 바다 위의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바다에서 돌아온 얼굴은 출발할 때보다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이런 하루는 마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물가까지 이동할 환경과 안전한 장비가 없다면 시작하기 어렵다. 이번 행사에서 후원은 바로 그 거리를 잇는 역할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마음이 SUP 전용 시트가 되고, 균형을 잡는 장치가 되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다. 후원은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한 사람이 새로운 경험에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 되었다.

후원은 대개 금액으로 기록된다. 얼마가 모였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숫자로 정리한다.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그 마음이 도착한 장면을 모두 보여주기 어렵다. 후원금은 장비를 마련하는 데 쓰이지만, 참여자의 삶에 닿을 때는 다른 모습이 된다. 모래사장을 지나 물가에 도착한 하루가 되고, 처음 SUP에 오른 기억이 되고, 바다 한가운데서 마주한 노을이 된다.

후원의 의미는 주는 순간보다 그 마음이 도착한 장면에서 더 선명해진다.

후원회원들도 바다 밖에서 박수를 보내는 데 머물지 않았다. 참여자와 함께 SUP에 올라 같은 물결에 몸을 맡기고 같은 방향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보드가 흔들리면 함께 중심을 잡았고, 방향이 달라지면 서로의 움직임을 맞추었다. 동행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순간에 더 정확해졌다.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미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경험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한 장면을 함께 완성하는 일이었다.

후원회원에게도 이날의 바다는 특별했을 것이다. 자신이 보탠 마음이 어디에 닿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류 속 사업명이나 결과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보드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후원의 의미를 만났다. 후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흐르는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 만들면서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이전에는 없던 기억을 돌려주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준비할 때 자주 '특별한 행사'라고 부른다. 실제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쉽게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기에 특별한 것이 맞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경험이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면 좋겠다.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안전하게 돕는 사람이 있으며, 물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축제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활동을 고르는 일. 바다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말이 풍경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는 일이다.

접근할 수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야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재활은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금의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는 과정도 중요하다. 운동하고 이동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만나고, 여행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생활의 폭을 넓혀가는 일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시작될 장면은 함께 마련할 수 있다.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오자 보드들이 하나씩 물가로 돌아왔다. 구명조끼를 벗고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처음 보드가 흔들렸던 순간, 생각보다 편안했던 바다, 노을 아래에서 바라본 풍경에 관한 말들이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쉰한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51

오갔다. 행사는 저녁과 함께 마무리되었지만 경험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진으로 남고, 이야기로 다시 꺼내지고, 다음 활동 앞에서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본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걷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고 했다. 그날 다대포에는 비 대신 작은 파도가 있었다. 우리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파도 위에서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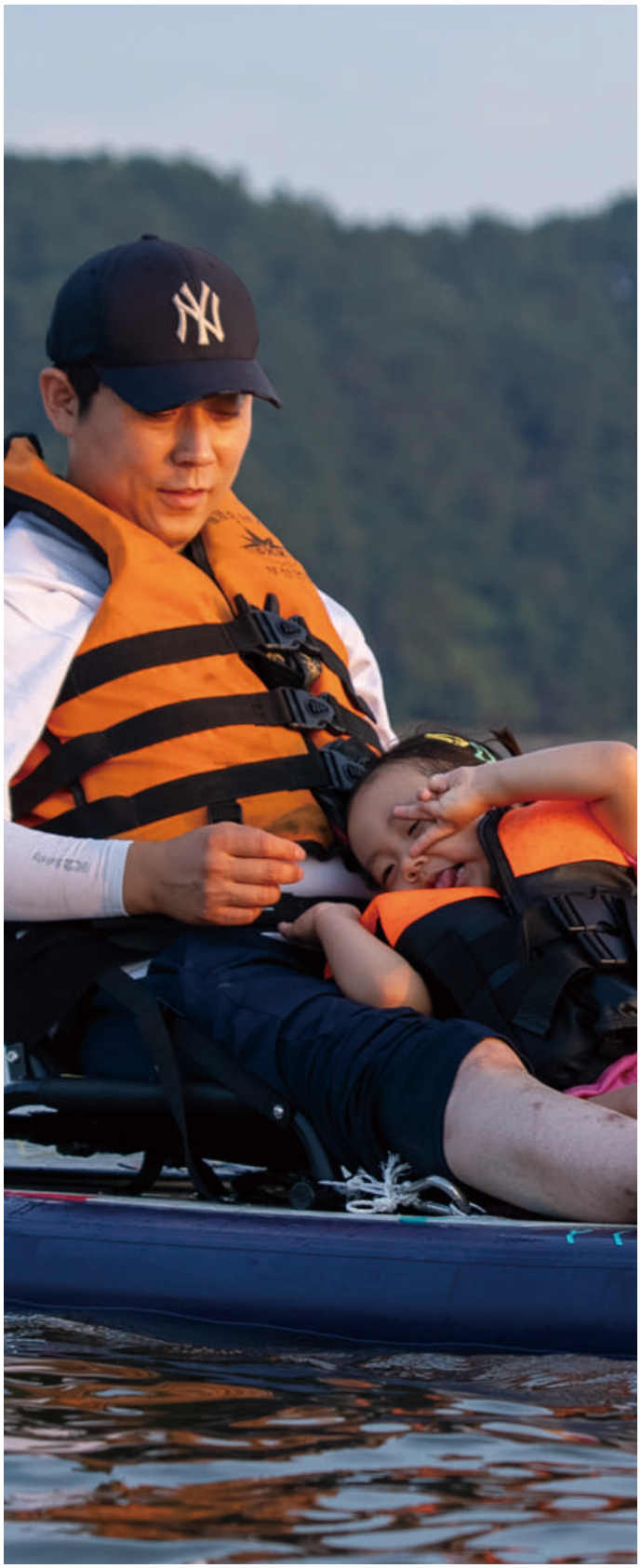
동행은 파도가 없는 바다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니었다.
같은 파도 위에 함께 오르는 일이었다.

참여자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했고, 후원회원은 자신의 마음이 한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넓히는지 보았다.
부울경바다수영협회 회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하루가 안전하게 완성되도록 힘을 보탰다. 서로 맡은 역할은 달랐지만 바라본 방향은 같았다.

그날 우리는 바다를 정복하지 않았다.
다만 바다를 함께 경험했다.

바다는 전과 같은 자리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바다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였다.



[병원의 문장]

이번 소식지 브런치 51번째 이야기는
현재 개인적으로 출간을 목표로 하는
'글로써 병원을 그리다, [병원의 문장]'
제17화에 올린 글입니다.



브랜드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원고모집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담는 공간으로 운영중입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도 모두 환영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직접 참여해 주신 직원분들께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원고는 매월 25일까지 홍보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료에 해당하는 사은품은 당월 응모량 및 글 내용을 반영하여
브랜딩실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생타드레스의 정원》 Garden at Sainte-Adresse, 1867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8.1 × 129.9 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52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6년 08월 28일
편집인 브랜딩실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